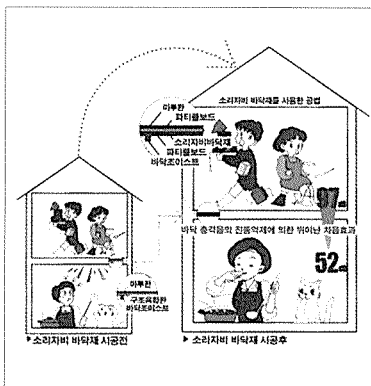


차음재 '소리자비' 각광

주식회사 소리자비



현대사회의 소음공해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. 특히 공동주택이나 도로인접지역, 공항주변 지역 등에 거주하는 현대인들은 여러 형태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, 그 어느 곳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.

이같은 상황이 자재회사들의 차음재 개발을 유도하였고, 최근 (주)소리자비(대표·나승철)에서도 일본에서 성능이 인정된 차음재 소리자비를 국내에 시판, 그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. 보통 소음 차단에는 납이 가장 좋은 소재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유해성, 그리고 중량면에서 부적절하여 소리자비에서는 고품질 산화철을 아스

팔트에 혼입, 특수 가공처리한 제품을 내놓게 된 것이다. 이 제품은 일본 JIS 규격 기준시험에서 성능을 인정받았고, 칼 등으로 쉽게 절단할 수 있어 시공이 간편하며 합판이나 석고보드, ALC판 등에도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.

일본과 기술제휴로 국내 생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번 제품들은 아직은 수입·판매에 그치고 있으나 곧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시판되고 있는 종류로는 바닥재, 벽재, 배관재 등으로 이같은 제품들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방재연구원의 검증에서도 통과되어 품질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.

소리자비에서는 이번 차음재의 시험 결과 두께 2.4m/m 이면 25dB(데시벨)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. 이 같은 특징점으로 인해 공동주택, 스튜디오, 극장, 강당, 체육관, 병원, 기계실, 공조실, 공연장, 도서관 기타 특수시설 등 소음과 연관된 곳이면 어느 곳이든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.

차음과 흡음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차음재 소리자비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의 즐거움과 주거생활에 적잖은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문의 (02)577-6370 www.sorizabi.com

센서내장형 소변기 출시

유화도기상사

센서가 부착된 소변기가 새롭게 출시되어 건축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 위생도기 전문업체인 유화도기상사(대표·윤대영)에서 기존 제품의 단

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선을 보인 제품명 미로(MIRO) 소변기는 KS-VU320S 마크를 획득, 제품의 신뢰를 더 해 주고 있다.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센서와 소변기가 조화를 이루어 외관이 미려하고, 시공이 간편하며 현대적이고 곡선미가 뛰어나 제품의 격을 높여 주었으며 최첨단 디지털 마이콤 형식으로 센서 내장형 소변기(Sensor-Embedded)의 성능과 기능을 한단계 끌어올린 최첨단 기술의 감성이 살아있는 제품인 점이다. 또한 소변세척 후 최적유량(1,000 CC)으로 자체 트랩이 내장되어 있어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스프레더 부착으로 세척기능을 완벽하게 해결하였으며 뱃데리 수명(리튬 뱃데리)도 2년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고안되었다.

건축 관련 각종 자재의 성능은 물론 외관도 중요시되는 현대건축에서 이같은 신제품의 등장은 건축주들에게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게 할 것이며, 우리의 화장실 문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보인다.

문의 (02)2274-6343~4

